

나눔·소통 가치 실현 '전주시 공동체' 육성

시, 20일까지 지원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전주시가 올해도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를 육성하기로 했다.

시는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나눔과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2026 전주시 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모집한다.

'전주시 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동체를 구성한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시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단체에 대해 활동비와 운영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올해 △마을공동체 17개 △온두레공동체 27개 단체 등 2개 분야에서 총 44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전주시 공동

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먼저 마을공동체 분야의 경우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15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대상으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발굴한 마을의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주도의 마을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시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에 평가 결과에 따라 500~700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온두레공동체 분야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전주시민 5명 이상이 구성해 교육·봉사·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추진하게 되며, 단체당

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는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GYONG2391@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4월 중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전주시 마을공동체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공동체를 최종 선정 및 공고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전주시 청년센터인 '청년이음전주'에서 이직 및 취업 준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

전주시, 청년이음전주서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주시 청년센터인 '청년이음전주' (완산구 현무길 31-5)에서 이직 및 취업 준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매월 마지막 주부터 모집하며, 정월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전문 강사를 연계해 매월 주차별로 운영되며,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DISC 행동유형 검사, 성격 분석 상담) △취업 스킬 강화(자기소개서 클리닉, 퍼스널 브랜딩) △직무 역량 강화(Notion 활용) 등 단계별 교육으로 진행된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기관과 협업을 통해 청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음전주에서는 가상의 면접관이 질문하고 응답 내용과 반응을 분석해주는 'AI 모의면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일자리 안내 기능을 추가 도입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이음전주의 주요 프로그램 및 정책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정지대 누리집(youth.jonju.go.kr) 또는 SNS '청년이음전주'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5318~9)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드론축구 비디오 판독' 시대 연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레저스포츠 분야 최종 선정... 영상보조심판 도입 실증 착수

세계 최초로 전주에서 시작된 드론 축구 경기에 축구와 야구 등 다른 스포츠 경기와 같이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도입된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레저스포츠 분야에 최종 선정돼 육안 판정에 따른 오심 문제 해결을 위한 영상보조심판(VAR) 도입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드론레저스포츠를 선도해 온 중주도시답게 경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준 표준 모델을 선택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날 주관기관과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증에 돌입할 계획이다.

실제로 드론축구는 그동안 선수들의 기량 상승과 기체의 빠른 이동 속도로 인해 육안 판정의 한계와 오



전주시는 지난 13일 2026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협약을 개최했다.

심 논란 등이 일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사)대한드론축구협회와 드론축구 전용 영상보조심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영상보조심판 시스템 구축 △세미프로대회 연계 실제 대회·경기 중실증 실증 △경기 운영 표준화 정립 및 규정집 마련 △영상보조심판 양성 및 교육 등의 핵심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레저스포츠 분야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드론축구의 오심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종목의 신뢰도를 높여 전문 스포츠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관정의 객관성과 경기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실증의 핵심"이라며 "전주에서 다져진 드론축구의 기술 표준이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사회연대경제기업 협업 활성화 사업 추진

전주시가 올해도 지역사회 문제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주시 사회연대경제기업 협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는 지난 13일 센터 분관 커뮤니티홀에서 올해 사업에 선정된 9개 기업과 '전주시 사회연대경제기업 협업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센터는 참여 기업들과 구체적인 수행 계획과 프로젝트별 추

진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 간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에 대해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사회연대경제기업 협업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는 3개 이상의 사회연대경제기업이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진행됐으나, 올해는 전주시가 사회문제 중심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응모 기업이 프로젝트의 세부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모 결과 총 9개 기업이 최종 선정돼 △전주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원을 연계한 '새싹로움 투어 개발 프로젝트'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대상 '인생 한 컷 프로젝트'의 두 분야의 협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새싹로움 투어 개발 프로젝트'는 전주 고유 문화자원 발굴과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이 오랜 시간 머물고 싶은 전주를 만들고 체류 환경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브랜드 '새싹로움'은 여러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상품을 모아 공동으

로 판매하고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공동상품 브랜드이다.

또한 '인생 한 컷 프로젝트'는 독거노인이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웰엔딩'을 지원하고, 더불어 불행 공백을 보완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모하도록 기획됐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은 "참여 기업이 이번 협업을 통해 연대의 힘을 발휘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에 기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2026 김제
꽃빛드림축제
2026. 4. 3. - 4. 5.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